



운전자의 고령화와 자동차보험

전용식 연구위원

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의 증가세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. 치료비는 발생한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병원 및 직불 치료비, 그리고 합의 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되는데 향후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 경미사고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증가세가 확대되는 원인은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진료일수 장기화인 것으로 보임.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사고 진료일수 장기화가 심화될 경우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의 확대는 불가피함. 치료비 증가는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,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

■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상 보험금 중 치료비의 증가세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

-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4년 이후 연평균 4.91% 증가하였는데, 이 가운데 대인배상 치료비는 연평균 9.76% 증가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세를 확대시킴
 -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11조 5,462억 원인데, 이 중 23.6%인 2조 7,231억 원이 치료비이고 53.7%인 6조 2,022억 원이 차량수리비임
- 치료비는 2009년부터 2012년간 연평균 2.33% 증가하였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.41% 증가하여 2014년 이후 치료비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음

■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병원 및 직불 치료비와 실제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되는데, 향후치료비 증가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임

- 향후치료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.90% 증가하였으나, 병원 및 직불 치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7.95% 증가함
 - 향후치료비가 부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31.9%(7,329억 원)에서 2017년 40.8%(1조 2,219억 원)로 확대됨

■ 치료비 증가율이 확대되는 주된 원인은 진료기간의 장기화로 보임

- 2017년 교통사고 부상환자들의 평균 진료기간은 22.7일로 2014년에 비해 연평균 4.5% 증가하였고, 평균 진료비는 2014년 63만 4천 원에서 2017년 80만 4천 원으로 8.2% 증가함
 - 피해 인원은 2014년 147만 3,350명에서 146만 1,057명으로 0.3% 감소함
- 진료실 일수 비중의 경우 8일에서 15일, 16일에서 30일의 비중이 높아짐
 - 진료실 일수가 7일 이내인 경우는 2014년 68.3%에서 2017년 61.9%로 줄어든 반면 8일에서 15일, 16일에서 30일의 경우는 16.6%에서 18.9%, 8.0%에서 8.9%로 상승함
 - 진료실 일수가 361일 이상인 경우도 1.3%에서 4.6%로 상승함
-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인 외래진료비, 한방진료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.3%, 2.6%로 나타남
 - 진료비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일수가 늘어나면서 치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
- 향후치료비는 관행적으로 평균 진료기간(혹은 통원일수)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진료기간의 장기화는 향후치료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임

〈표 1〉 부상 환자의 진료실 일수 분포와 관련 통계

(단위: %, %p, 명, 만 원, 일)

구분		2010	2014	2017	변화율	
					2010~2014	2014~2017
진료실 일수	7일 이내	69.1	68.3	61.9	-0.8	-6.4%p
	8일~15일	15.9	16.6	18.9	0.7	2.3%p
	16일~30일	7.6	8.0	8.9	0.4	0.9%p
	31일~90일	4.5	4.5	4.6	0.0	0.1%p
	91일~150일	0.8	0.7	0.6	-0.1	-0.1%p
	151일~360일	0.5	0.4	0.4	-0.1	0.0%p
	361일 이상	1.6	1.3	4.6	-0.3	3.3%p
피해 인원(명)		1,304,498	1,473,350	1,461,057	3.1	-0.3%
평균 진료비(만 원)		67.5	63.4	80.4	-1.5	8.2%
평균 진료기간(일)		17.2	19.9	22.7	3.7	4.5%
입원율		55.2	36.8	31.8	-9.6	-4.8%
외래진료비(2015=100)		93.1	98.0	104.9	1.3	2.3%
한방진료비(2015=100)		85.2	97.5	105.3	3.4	2.6%
평균 향후치료비 ¹⁾ (만 원)		61.8	72.5	93.6	4.1	8.9%

주: 1) 평균 향후치료비는 향후치료비 지급금액을 피해 인원으로 나눈 값임

자료: 보험개발원

■ 경미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간의 장기화는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

- 자동차보험에서 집계한 사망자 수는 2010년 3,738명에서 3,014명으로 감소하였으나, 부상자 수는 158.7만 명에서 160.3만 명으로 소폭 증가함
- 부상의 경우, 상해등급 12~14급 경상사고 부상자 수는 2010년 72.3만 건에서 2017년 157.0만 건으로 증가하였고, 그 비중은 45.6%에서 94.1%로 상승함
-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5.6%에서 2017년 12.3%로 높아졌고, 부상자 수 비중도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음
 - 2017년 60세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대인보험금은 평균 377만 원이고 평균 부상보험금은 278.6만 원임

〈표 2〉 교통사고 사망자, 부상자 수 분포

(단위: 명, 만 명, %)

구분	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7
사망(명)		3,738	3,438	3,469	3,181	3,185	3,273	3,014
부상(만 명)		158.7	157.9	163.2	151.6	156.8	163.1	160.3
상해 등급	1~7급	2.9	2.8	2.6	2.5	2.3	2.3	2.1
	8~14급	97.1	97.2	97.4	97.5	97.7	97.7	97.9
	12~14급	45.6	48.9	51.9	58.5	85.9	93.2	94.1
65세 이상	교통사고 비중	5.6	6.1	6.8	8.2	9.1	9.9	12.3
	사망자 수 비중	9.9	11.6	13.3	14.5	16.0	17.6	20.3
	부상자 수 비중	5.3	5.8	6.4	7.8	7.8	9.6	12.0

자료: 경찰청, 「2017 교통사고 통계」; 도로교통공단; 보험개발원

■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, 진료기간 장기화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보험제도의 변화가 필요함

-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증가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,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,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
 - 2017년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 억제,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치료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비 지급 보증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였고, 치료비 지급보증 개정방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임¹⁾ [kiri](#)

1) 전용식(2017), 「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」,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토론회, 국회의원 주승용·보험연구원 공동주최